

## 해남 녹우당 소장 鏡臺 연구

권주영

## I. 머리말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는 해남 윤씨 가문 소장품의 경대 1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경대는 목제 경대 위에 원형의 구리거울이 거치된 공예품으로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구리거울은 문양과 명문에서 에도시대 倭鏡으로 판단되며, 목제 경대는 조선시대 후기의 기물이다.

이 경대가 어떠한 경로로 해남 윤씨 가문에 소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씨 가문 대대로 전해내려 오다가 1979년 고산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면서 공개되었으며 이후 2010년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공재 윤두서》 특별전에서 녹우당 현판 및 〈윤두서 자화상〉과 함께 전시되어 주목된 바 있다. 이 경대는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전하는데 자화상의 제작과 관련된 거울 자료로서 유일한 예이다. 倭鏡의 명문으로 짐작하던 거울의 제작 시기와 자화상의 제작 시기가 대략 일치하여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 없다. 이외에도 해남 윤씨 가문에는 〈日本輿圖〉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소장품을 통해 녹우당과 윤두서, 일본과의 관계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윤두서 가문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색채에 대

權珠英

경남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과장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금속공예사

\* 필자의 최근 논저: 「조선시대 倭鏡의 유입과 배경」, 『美術史學研究』283·284, 2014, 12; 「여말선초 梵字文柄鏡 연구」, 『동아시아의 문물』, 중헌 심봉근선생 고회기념논문집, 2012; 「조선시대 남해안 지역 선창연구」, 『한·일공동 수증고고학 연구발표회 논문집』, 한국수증고고학회 한·일공동 수증고고학 연구발표회, 2008, 5, 17.

해 밝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녹우당 소장 경대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기물이 자화상의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남 윤씨 가문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아울러 이를 통해 조선시대 거울 문화를 단편이나 마 이해해 보고자 한다.

## II. 해남 녹우당 소장 경대 분석

녹우당 소장 경대는 길이 29.8cm, 너비 27.0cm, 높이 16.0cm의 방형 목제품이다. 전체 이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층에 구리거울이 거치되고 아래층에는 1단의 긴 서랍이 있다<sup>1</sup>.

뚜껑은 반으로 절개하여 원판형 경첩으로 연결하고 여단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판 내측에 별도의 널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고 세우면 구리거울을 볼 수 있다. 이 널에는 원형 구멍을 뚫어 구리거울을 끼우도록 고안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결속구는 없고 가장자리에 단을 두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sup>2</sup>.<sup>1</sup> 뚜껑의 뒤판과 몸체는 망두형 경첩으로 연결하였으며 경첩은 모두 주석 장식이며<sup>2</sup> 'ㄷ'자형 못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sup>3</sup> 경대 앞면에 불박이형 꺾쇠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는데 경대 뚜껑에 위치하는 등근 봉을 뒤로 밀면 잠기고 앞으로 당기면 열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물쇠는 반달이처럼 문을 위, 아래로 여는 가구에 사용되었으며 보안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sup>4</sup> 앞바탕은 방형으로, 사용으로 인해 굽힌 흔적이 남아 있다<sup>5</sup>.

3. 몸체는 연귀짜임으로 제작하고 모서리를 빙 둘러 마름모형의 감잡이로 감싸고 있



1  
〈녹우당 소장 경대〉  
조선 후기  
목제 29.8×27.0×16.0cm  
녹우당



2 〈녹우당 소장 경대〉 뚜껑 내측 세부  
3 〈녹우당 소장 경대〉 위에서 바라본 모습  
4 〈녹우당 소장 경대〉 다리 측면

으며 별도의 귀장식은 없다. 아래층의 긴 서랍은 맞짜임으로 제작되었는데 들쇠는 결실되었다. 서랍 안에는 붓 서너 자루가 함께 보관되어 있다. 다리는 아래널(밑널)의 네 귀둥이에 각각 별도의 다리를 만들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장식과 자물쇠 외에 별도의 장식은 없으며 나무의 결을 살린 수수하고 소박한 경대이다.

제작 시기는 뚜껑을 열어 거치하는 형태라는 점과 불박이형 자물쇠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로 판단된다. 특히 독립된 4개의 다리는 일반적인 족통과 족대와는 구별되는 제작법으로 조선시대 19세기 후반 이후 전통가구 제작법의 쇠퇴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된다<sup>5</sup>. 한편 방형·원형·망두형의 경첩과 방형의 앞바탕, 마름모형 감잡이 등은 전라도 지역의 반달이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으로 경대의 제작지를 유추할 근거가 된다.<sup>6</sup>

1 거울을 거치하기 위해 제작된 이 널은 양쪽 가장자리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한 상태이다.  
2 장식제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동합금의 재료이다. 조선조에 주로 쓰였던 주석 장식은 동과 합금된 재료이며 대체로 단조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정국대전』에는 “주석으로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豆錫匠”이라 칭하고 있다. 홍정실, 『장식과 자물쇠』(대원사, 1990), pp.98-102.  
3 천판을 열어 내측에 못머리를 두드린 흔적이 확인된다.  
4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형 자물쇠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불박이형 자물쇠는 조선시대 기물에서 확인되는데 형태로는 북동형·선형·꺾쇠형·은혈형 등이 있으며 대체로 18세기 이후의 관모함·빗집·경대·함과 같은 소형 기물에서 관찰된다. 이형원, 「三國~高麗時代 열쇠·자물쇠의 變遷 및 性格」, 『백제연구』41(2005), pp.125-165; 김민희, 「한국 전통 자물쇠의 조형성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83-85.

5 우리나라 전통가구의 다리는 족통과 족대로 구성된다. 녹우당 소장품과 같이 4개의 독립된 다리를 부착한 형식은 20세기 초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에서 확인되며 이전 시기의 기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이 전통기법의 변화에서인지 일본 가구 제작법의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기욱, 「朝鮮時代 生活 木家具 研究」(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112-157; 안현정,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의 日本化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17(2011), pp.322-335.  
6 조선시대 목가구에 대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조사를 통해 지역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 중 반달이는 장식의 유형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경대의 경우 확실하지 않으나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유물 이해 I-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2003), p.62; 김희수, 「경기도 반달이」, 『家財, 삶의 흔적이 녹아들다』(부산시립박물관 기증유물도록V, 2009).

경대에 거치된 구리거울을 살펴보면 직경 24.2cm의 원형 거울로 牡丹唐草文鏡이다. 경배 전면을 문양으로 장식하여 채워 넣었으며 주연은 직립하고 연부 두께는 0.7cm이다. 경배와 경면 모두 부분적으로 녹이 슬고 가장자리에는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sup>5</sup>. 문양을 살펴보면 鏡背 전체에 가는 모래를 흩뿌린 듯한 砂目地를 배경으로 만개한 3송이의 모란과 줄기잎이 장식되었다. 바탕화면은 일부 겹쳐져 성글게 엉겨있는 현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균일하다. 중앙에 모란꽃 3송이가 위치하는데 꽃잎 내부를 유연한 세선으로 채워 넣었다. 모란꽃 주변에 펼쳐진 줄기는 팔메트(palmette)와 같이 굽이치며 장식되었고 줄



기 사이의 빈 공간에 모란잎을 그려 넣어 화면을 빈틈없이 매운다. 전체적으로 세밀한 표현을 통해 풍만하고 장식적인 표현을 하였는데 주문양인 모란꽃 3송이의 방향을 약간씩 다르게 주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경배의 오른쪽 하단에는 덴카이즈 모리타 무사시카미(天下一森田武藏守)라는 명문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는 왜경에서 흔히 확인되는 鏡師銘으로, 일본 에도시대에 거울을 제작한 鏡師 이름과 일본 궁중에서 허가받은 受領國銘이 결합된 형식의 명문이다.<sup>7</sup> '天下一'은 모모야마 시대부터 쓰여온 '세계 제일', '최고'라는 의미의 수식어이고, 모리타(森田)는 장인 또는 장인 집단의 性, 무사시카미(武藏守)는 현재의 도쿄 지역 일대에 위치하였던 전국시대 나라이름이다.<sup>8</sup> 동일한 명문의 거울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牡

5  
〈녹우당 소장 왜경〉  
17~18세기 전반  
동계 24.2cm  
녹우당

7 일본 에도시대 거울의 명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中野政樹, 『和鏡』, 日本美術 第42号(至文堂, 1969), p.65; 広瀬都巽, 『扶桑紀年銘鏡圖說』(大阪市立美術館學報1, 1938), p.159; 内川隆志, 『柄鏡の變遷』, 『柄鏡大鑑』(ジャパン通信社, 1994), pp.343-350.

8 덴카이즈 모리타 무사시카미(天下一森田武藏守)에 대한 거주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나 이와 동일한 성을 사용하였던 모리타 무사시카미(森田武藏守), 모리타 무사시카미 기치지(森田武藏守吉次)는 게이안(慶安, 1648~1651)시대부터 겐로쿠(元祿, 1680~1704)시대까지 세습된 거울의 제작자 또는 제작집단이다. 森田武藏守의 경우 거주지역이 현재의 도쿄지역 일대임이 확실하지만 森田武藏守吉次の 경우 오사카에 거주한다는 기록 또한 확인되고 있어 이들 경사집단이 활동한 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広瀬都巽, 『和鏡の研究』(角川書店, 1974), p.171;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柄鏡大鑑』(ジャパン通信社, 1994), p.417.



6  
〈竹雀圖柄鏡〉  
天下一森田武藏守銘  
에도중기  
동계 鏡面 24.3cm  
柄部長 10.8cm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丹唐草柄鏡)<sup>9</sup> 및 <漢詩入り柄鏡)<sup>10</sup>과 개인소장의 <竹雀圖柄鏡)<sup>11</sup>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에도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편년된다<sup>6</sup>.<sup>12</sup> 녹우당 소장 왜경은 경배의 바탕화면이 겹쳐지지 않고 문양의 양감이 드러나며 세선이 또렷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주나 방제 거울이 아닌 原鏡이며 제작 시기는 경사명으로 판단컨대 17~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sup>13</sup>

그런데 이 거울은 손잡이가 없는 원형 거울임에도 불구하고 鈕가 없다. 고대로부터 동아시아의 거울은 원형의 구리거울 가운데 뉴를 두고 끈을 매어 사용하는 형태이며 별도의 손잡이가 있는 柄鏡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뉴가 부착되어 있다.<sup>14</sup> 뉴가 없는 원형 동판으로만 이루어진 기물에는 불을 일으키는데 사용한 陽燧, 벽사의 의미로 제작된 懸佛, 불교의 식용 鏡像 등의 예가 있다. 녹우당 소장품은 형태나 문양으로 보아 원래의 형태는 병경이었으나 후대에 손잡이를 절삭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일한 사례로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의 복장유물 중 하나인 봉래문경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원래 병경이었으나 후대에 손잡이를 절삭하고 상단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확인되어 유사성이 엇보인다<sup>7</sup>. 또한 국

9 牡丹唐草柄鏡은 화면 가운데 모란 한송이가 만개하고 그 주위로 경연을 따라 당초문이 두줄기가 뻗어나와 모란꽃을 둘러싸고 있다. 좌측에는 天下一森田武藏守라는 명문이 있다. 크기는 경면 직경 18.4cm, 손잡이 길이 10.3cm이다. 제작시기는 17세기이다. 東京國立博物館 홈페이지(www.tnm.go.jp) 참조.

10 漢詩入り柄鏡은 경배 전면에 細粒砂目地를 깔고 중앙에 '僕夫門興梅 莫顏靑鏡 金鵲鏡代美人'의 漢詩로 장식하였다. 크기는 경면 직경 24.3cm, 손잡이 길이 10.8cm이며 해당시기는 에도시대 전기이다.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앞의 책(1994), p.322, 426.

11 이케다 다로우(池田太郎)의 소장품이다. 竹雀圖柄鏡은 화면 오른쪽에 크고 작은 대나무가 괴석과 함께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참새 한 마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경면 직경 18.15cm, 손잡이 길이 7.85cm이며 제작시기는 대나무와 참새의 모티프가 에도시대 중기에 급격히 유행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에도시대 중기로 편년된다.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앞의 책(1994), p.246, 417.

12 이외에도 일본 에도시기 거울 중에는 모란문 거울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東京國立博物館 所藏品, 青木豊氏 所藏品, 池谷健二氏 所藏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앞의 책(1994), pp.139-142; 青木豊, 『和鏡の文化史』(刀水書房, 1992), pp.266-269.

13 일본 江戸時代 도량형은 전기와 중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량형에 있어 평균적으로 계산된 자료에 의하면 1尺에 대한 曲尺은 30.3cm이며 鯨尺은 37.88cm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京都故実研究会 홈페이지(www.teiocollection.com) 참조.

14 뉴는 거울을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형태가 매우 다종다양하여 동아시아 구리거울의 시기와 지역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외의 사례로 아이누족(アイヌ族)의 타마사이(タマサイ), 베트남의 〈虎字竹梅柄鏡〉 등이 알려져 있어 당시 왜경의 유행을 짐작케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녹우당 소장 구리거울은 17~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왜경이며 목제 경대는 19세기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다. 목제 경대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던 유리경대와 유사하지만<sup>15</sup> 유리를 부착하는 대신 구리거울을 끼워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현재의 목제 경대가 왜경이 처음 사용되었던 기물과 동일한 형태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구리거울을 거치하기 위해 鏡架와 鏡臺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

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鐵製金銀象嵌鏡〉가 있다<sup>8</sup>. 두 개의 사각틀을 교차시켜 접고 펼 수 있는 '교'자 형태이며 조선시대에까지 기본적인 형태가 유지된다. 이에 반해 현존하는 경대는 모두 조선 후기의 기물이며 이른 시기의 경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sup>16</sup>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이른 시기에는 길게 뻗은 기둥 하단에 鷲足を 부착하고 상단에 거울을 걸어 사용하는 鏡架를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가스가 다이샤(春日大社) 소장 가마쿠라 시대 〈漆平文根古志形鏡臺〉가 있다. 이후 에도시대에는 방형의 상자 위에 하나 또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 거울을 거치하는 형태의 鏡臺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sup>17</sup> 일본 동경국립



7 대구 파계사 봉래문경  
조선 후기  
직경 21.1cm

<sup>15</sup> 조선 후기 경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천판을 2개의 판자로 이어서 경첩을 달고 뚜껑 안쪽에 별도의 널을 대어 유리거울을 부착하거나 세운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천판을 하나의 판자로 만들어 별도의 유리거울을 세우거나 부착한 것이다. 녹우당 소장 경대는 전자의 형태에 가깝다. 한편 경대는 궤경대, 좌경이라고도 하는데 유리거울이 보급되면서 빗집에 거울을 부착한 것으로 말하자면 빗집이 발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대원사, 2006), p.62; 김삼대자,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목가구』, 『목가구 꾸밈展』(동아대학교 박물관, 2011), pp.188-189.

<sup>16</sup> 『宋起居注』에 고려시대 현경으로 소개된 그림이 확인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고려시대 경대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広瀬都巽, 앞의 책(1974), p.106.

<sup>17</sup> 이외에 에도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경가와 동일한 '교'자 형태의 鏡掛 또한 알려져 있는데 다이묘(大名)의 혼례 調度로 알려진 기물 중에 확인된다.

8  
〈鐵製金銀象嵌鏡臺〉  
고려시대  
58.8×40.0cm  
국립중앙박물관

9  
〈初音蒔繪鏡臺〉  
寛永16年(1639)  
那古野 徳川美術館



박물관 소장의 〈菊紋蒔繪鏡臺〉<sup>18</sup>와 〈天香具山蒔繪鏡臺〉,<sup>19</sup> 도쿠가와 미술관 소장의 〈初音蒔繪鏡臺〉<sup>20</sup>의 예가 알려져 있다<sup>9</sup>. 중국의 경대는 漢代 분묘 출토품에서부터 명청대 자금성에서 사용된 화려한 경대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전한다. 녹우당 소장 구리거울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중국 蘇州博物館 소장 원대 〈銀鏡架〉<sup>10</sup>와 上海博物館 소장 명대 〈黃花梨木製鏡臺〉<sup>22</sup>를 예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들은 방형의 상자 또는 금속제 장식 위에 별도의 천판 없이 구리거울을 세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상 동아시아에 전하는 경대 중 녹우당 소장품과 같이 뚜껑 안쪽 널에 구리거울을 거치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가 17~18세기에 사용된 경

<sup>18</sup> 菊紋蒔繪鏡臺는 天正16年(1588)의 명문이 있는 거울을 부착하고 있는 경태로서 무로마치 시대 새로이 등장한 형식의 경태이다. 천판에는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경태가 부착되어 있으며 몸통은 이단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 中野政樹, 앞의 책(1969), pp.85-86.

<sup>19</sup> 天香具山蒔繪鏡臺는 모모야마시대의 작품으로 천판에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경태가 부착되었고 몸통은 이단의 서랍이 달린 경태이다. 中野政樹, 앞의 책(1969), pp.85-86.

<sup>20</sup> 初音蒔繪鏡臺는 寛永16年(1639) 9월에 徳川 3대막부의 장녀인 치요공주(千代姫)가 지참한 혼례 가구이다. 고도의 마키에 기술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며 일본 17세기 대표 공예품 중 하나로 일본의 국보이다.

<sup>21</sup> 1964년 중국 장수성 쑤저우(江蘇蘇州)에서 발굴조사된 장사성(張士誠, 1321~1367) 부모함장묘에서 출토된 은제 경가로 전체 높이 32.8cm, 너비 17.8cm이다. 梅丛笑, 『以銅為鑒-中國古代銅鏡藝術』(中國書店, 2012), p.157.

<sup>22</sup> 黃花梨木製鏡臺에는 고정형의 黃花梨木寶座式鏡臺와 접이형인 黃花梨木摺疊式鏡臺가 있다. 上海博物館, 『中國明清家具館』, p.16.



10  
〈銀鏡架〉  
元 32.8×17.8cm  
중국 蘇州博物館

11  
〈黄花梨木製鏡臺〉  
明 20.5×15.3×26cm  
중국 上海博物館

대의 일반적인 형태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며 정황상 녹우당 소장 왜경은 원래 별도의 경가 또는 경대에 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거울만 녹우당에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사용 또는 보관을 위한 별도의 주문에 의해 현재의 경대가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 Ⅲ. 〈윤두서 자화상〉과 倭鏡

〈윤두서 자화상〉의 제작 시기는 윤두서가 낙향한 이후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기록과 그의 또 다른 작품인 〈沈得經 肖像〉보다 기량이 더 진전된 점으로 보아 1710년 11월 부터 17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이하곤이 쓴 『두타초』의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sup>23</sup>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관련 저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열화당, 1983), 이내옥, 『공재 윤두서』(시공사, 2003),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생각의나무, 2008),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돌베개, 2009), 박은순, 『공재 윤두서』(돌베개, 2010), 차미애,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한편 이 작품은 윤두서가 낙향했던 해인 1713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유홍준, 「공재 윤두서: 자화상 속에 어린 고뇌의 내력」, 『화인열전』1(역사비평사, 2011), p.58.



12  
윤두서 〈자화상〉  
17세기 말~18세기 초  
종이에담채 38.5×20.5cm  
녹우당  
(국보 제240호)

6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려는 의지가 있다. 긴 수염이 나부끼고 얼굴을 기름지고 붉으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꾼이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풍모는 행실이 돈독한 군자로 부끄럽지 않다. 내 일찍이 그를 평해 이르기를 풍류는 옥산 고덕취 같고 빼어난 기예는 승지 조맹부와 같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천 년 뒤에라도 그를 알고자 하는 자는 다시 먹과 채색으로 닮은 데를 찾을 필요 없으리.<sup>24</sup>

위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윤두서 자화상〉은 천 년 뒤에도 그를 알아볼 수 있다 하여 이 작품이 眞形에 충실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기저가 되는 傳神寫照의 정신과 ‘一毫不似 便是他人’의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공재 자신의 그림에 임하는 태도와 기본정신에서도 기인한다.<sup>25</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려야 하는 자화상의 경우 세밀한 묘사를 위해서는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두서가 활동한 시기인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조선의 거울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현존하는 각 박물관의 자료와 발굴조사 출토품을 참고하면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고려경과 함께 중국의 漢鏡 및 각 시대별 中國鏡, 일본에서 유입된 倭鏡 등 다종다양한 금속제 거울이 확인된다. 이들 거울은 서양의 유리거울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보급되기 이전까지 일상생활에 사용된다.<sup>26</sup> 유리거울은 투명하고 평평한 유리의 한쪽 면에 납·수은·주석 등을 덧발라 제작한 거울로 중세시대부터 서양에서 제작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유리 제작의 기술 부족으로 반사율이 낮아 금속제 거울과 함께 사용되었으나 16세기

<sup>24</sup> “尹孝彦自寫小眞贊, ‘以不滿六尺之身, 有超越四海之志’飄長髯而顏如渥丹. 望之者疑其爲羽人劍士. 而其恂恂退讓之風, 蓋亦無愧乎篤行之君子. 余昔評之曰風流似顧玉山, 絕藝類趙承旨. 苟欲識其人於千載之下者, 又不必求諸粉墨之肖似”, 李夏坤, 『頭陀草』 冊十七 雜著.

<sup>25</sup> 공재는 그림 그리기에 앞서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만큼도 참 모습에 의심이 없는 후에야 붓을 들었으며, 그려진 그림이 터럭 하나라도 참모습과 다르면 즉시 찢어버렸다. 이러한 내용은 남태웅이 소개한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내옥, 앞의 책(2003), pp.117-118.

<sup>26</sup>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발굴조사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공예품은 대체로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되던 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굴조사 출토품 중에는 상당수의 거울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품인 거울은 300여 점에 달한다.

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개발된 유리코팅법에 의해 기능상 우수한 거울이 생산되고 이후 널리 보급되었다. 17세기에는 유리거울이 흔한 일상 생활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1650년 이후 파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3건 중 2건에 거울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sup>27</sup> 중국의 경우 명대에 유리거울이 유입되었는데 유럽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이며 이후 청대 乾隆(1736~1795)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급된다. 일본에서는 1551년(天文 20)에 포르투갈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피에르가 야마구치(山口)의 다이묘인 오우치 요시타가(大内義隆, 1507~1551)에게 포교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하기 위하여 선물한 물품 중 유리거울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유리거울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에도시대 중기 18세기의



다이묘와 요시하라(吉原)의 遊女들이 사용하면서 부터이며 메이지 16년(1883)에는 오사카에 일본관유리회사가 설립되면서 대중적으로 보급된다<sup>13, 28</sup>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리거울은 18~19세기의 경대에 부착된 것이다. 그러나 유리거울이 전해진 것은 명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17세기 초 李垞의 『蒼石集』에는 다음의 시구가 있다.

압록강 봄물에 닳출 서서히 당기니  
 사신은 술을 들고 귀한 손님을 위로하네.  
 파도 빛은 밝게 빛나며 유리거울과 같고  
 초록빛이 넓게 펼쳐진 모습이 비취와도 같아라.  
 자리를 마련하여 앉아 비파줄을 고르고  
 주방에서는 조각조각 은비를 생선회를 올리네.  
 구름과 비처럼 모였다 흩어짐이 아쉬워라.  
 서북쪽으로 밝아지는 아침이 새로운 이별을 고힌구나.<sup>29</sup>

13  
 歌川国貞 <ガラス鏡を見る遊女>  
 三代目龍車樂屋  
 日本東京國立博物館

<sup>27</sup> 사빈 멜쉬오르 보네 지음, 윤진 옮김, 『거울의 역사』(에코리브르, 2001), pp.25-44.

<sup>28</sup> 陈晴 主編, 『古鏡』(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03), pp.136-137; 管維良, 『中國銅鏡史』(重慶出版社, 2006), pp.336-356; 管谷文則, 『日本人と鏡』(同朋社, 1991).

<sup>29</sup> “綵纜徐牽鳴水春, 使君携酒慰佳賓, 波光淨瀉琉璃鏡, 草色平鋪翡翠茵, 狎坐泠泠調錦瑟, 供廚片片落銀鱗, 却嫌聚散如雲雨, 西北明朝別恨新”, 李垞, 『蒼石集』卷之一 ‘龍灣舟上即事’.



14  
 김홍도 <큰머리여인>  
 조선 18세기 후반  
 종이에 채색 24.7×26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와 같이 17세기 문집에서는 빛이 반사되는 밝기를 유리거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당시 유리거울에 대해 작가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세기 초 이익의 『星湖僊說』 제4권 「萬物門」과 홍세의 『柳下集』에서는 유리거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 회화 작품 중 김홍도의 <큰머리 여인>, 작자미상의 <태평성시도>와 <곽분양행락도>에는 유리거울을 부착한 경대를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14, 30</sup> 그러나 조선에서 유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1902년 李容翊이 건립한 국립유리제조소에서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일반 대중

에게 보급되므로 이 시기에 유리거울 또한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7~18세기 전반에는 금속제 거울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리거울이 일부 알려지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 금속제 거울의 반사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리거울은 반사율이 98% 정도이다. 금속제 거울은 이에 못 미치지만 은제 거울은 94.2%, 알루미늄제 거울은 84.8%에 이른다.<sup>31</sup> 구리거울의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30%에 가까운 백동제는 반사율이 63%를 상회하지만 그 외에는 반사율이 낮아 象이 흐리다.<sup>32</sup>

<sup>30</sup>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太平城市圖>에는 금속제 거울을 경가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유리제 거울이 부착된 경대를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 당시 금속제 거울과 유리제 거울이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속제 거울을 경가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郭汾陽行樂圖>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태평성시도>의 장면과 있어 두 화면의 구도와 배치, 인물과 배경 및 채색 또한 상당히 유사하여 차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sup>31</sup> 가시광선의 파장대는 약 400~700nm인데, 금속 중 알루미늄(Al)은 모든 파장대에서 골고루 반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은(Ag)은 대략 360nm 보다 큰 파장대에서 반사도가 높으며 금(Au)과 구리(Cu)는 대략 700nm 이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반사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금속 거울의 소재로 금과 은 또는 구리가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제작된 금속 거울은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구리가 주로 사용된 것이다. 실제 거울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알루미늄제 거울은 84.8%의 반사율을 보이고 은제 거울은 94.2%의 반사율을 보인다. (주)한국양행, 『알루미늄 거울과 은경의 분광학적인 비교』(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5. 3. 21).

<sup>32</sup> 현재 백동으로 분류되는 예로서는 구리 65%와 니켈 35%는 상질 백동이라 하며, 구리 75%와 니켈 25%는 일반적 백동, 구리 90%와 니켈 10%는 하질 백동으로 분류한다. 임옥주, 「통합금의 재료

표1 고려~조선시대 거울 성분 분석(%)

번호	정명	구리 (Cu)	주석 (Sn)	납 (Pb)	불소 (P)	안티몬 (Sb)	비소 (As)	은 (Ag)	철 (Fe)	니켈 (Ni)	아연 (Zn)	황 (S)	코발트 (Co)	계
1	용문동경	89.30	7.72	1.13	1.43	0.48	0.25	0.19	0.09	0.05	0.02	0.02	-	106.68
2	국화문원형경	74.10	22.10	1.20	1.43	1.15	0.57	0.26	0.04	0.05	0.01	0.02	-	107.44
3	쌍금당초문팔화경	77.70	19.90	0.73	0.23	0.47	0.44	0.42	0.13	0.02	0.08	0.04	-	108.16
4	칠보문경	76.23	9.41	12.24	-	-	0.30	0.04	0.02	0.06	-	-	0.01	98.31
5	칠보문경	77.55	9.58	8.62	-	-	0.24	0.03	0.27	0.09	0.02	-	0.04	96.44
6	무문팔화형경	68.32	9.04	8.87	-	-	0.23	0.07	0.16	0.03	0.03	-	0.01	86.76
7	국화문범자경	80.47	9.14	6.43	-	-	0.23	0.06	0.12	0.08	0.06	-	0.01	96.6
8	소문팔화형경	72.55	10.38	16.11	-	-	0.29	0.67	-	-	-	-	-	100
9	소문팔화형경	78.06	10.14	11.79	-	-	-	-	-	-	-	-	-	99.99
	계	77.14	11.93	7.45	1.03	0.7	0.31	0.21	0.118	0.054	0.036	0.02	0.017	100.04

국내 금속제 거울에 대한 성분 분석 연구는 대체로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고려~조선시대 거울에 대한 성분 분석이 시행되어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sup>33</sup> 현재까지 소개된 고려~조선시대 거울의 분석자료는 총 9건으로 이들 성분비를 종합하여 평균치를 구하면 표1과 같다. 대체로 구리 77.14%, 주석 11.93%, 납 7.45%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외 니켈과 철 등이 소량 확인된다. 즉 순동과 주석을 합금하여 제작한 청동제 거울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그렇다면 녹우당 소장 거울은 어떠할까. 이에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녹

적 특성과 그 조형적 해법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22-23.

<sup>33</sup> 황진주, 「우리나라 청동문화재의 주성분 조성분포 연구」(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광용·김영철·맹선재, 「미륵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보존과학회지』1(1992), pp.27-39; 정영동·박장식, 「경주 분황사지 출토 청동기에 나타난 기술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3, No.1(2005), pp.80-86; 박장식·유재은, 「이천 설봉산성 출토 청동유물에 나타난 청동기 제작 기술체계」, 『문화사학』21(2004), pp.321-343; 전익환 외 3명, 「한반도 출토 청동거울의 표면처리 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Vol.22(2008. 3), pp.47-49.  
<sup>34</sup> 고려~조선시대 거울의 분석자료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전익환, 이재성, 백지혜, 박장식, 「한반도 출토 청동거울의 표면처리 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Vol.22 통권 22(2008. 3), pp.87-98; 김정훈, 노경숙, 김수경, 이찬희, 「고려시대 동경의 금속학적 특성과 조성변화」, 『금강고고』5(2008), pp.55-70, 87-98; 김우현, 「중부내륙지역 출토 동경·동계병의 금속학적 연구」(한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표2 녹우당 소장 거울 성분 분석(%)

	구리 (Cu)	주석 (Sn)	비소 (As)	납 (Pb)	텔루륨 (Te)	철 (Fe)	크롬 (Cr)	니켈 (Ni)	아연 (Zn)	계
1	77.8	10.7	6.65	4.11	-	0.17	0.24	0.22	0.077	99.967
2	79.5	8.27	6.51	4.46	0.35	0.65	-	0.20	-	99.94
3	83.1	6.93	7.18	1.96	0.36	0.12	-	0.19	-	99.84
4	83.6	6.17	7.24	1.81	0.39	0.51	-	0.17	-	99.89
5	78.6	9.07	7.04	4.69	0.34	0.19	-	0.17	-	100.01
6	84.7	5.25	7.17	1.89	0.48	0.13	-	0.20	-	99.82
계	81.2	7.73	6.95	3.13	0.32	0.29	0.24	0.19	0.077	99.91

우당 경대의 구리거울에 대한 비파괴분석을 실시하였다.<sup>35</sup> 비파괴 분석은 시료 없이 기물의 표면에 광선을 쬐어 얻는 데이터이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물 위에 여러 포인트를 대어 산출하였다.<sup>36</sup> 그 결과 확인된 성분비 데이터는 표2와 같다.<sup>37</sup>

녹우당 소장 거울의 성분은 구리 81.2%, 주석 7.73%, 비소 6.95%, 납 3.13%이며 이외 텔루륨, 철, 니켈 등이 소량 확인된다. 구리가 주성분이고 주석과 비소, 납 등의 성분이 10% 미만인 청동 거울이다.<sup>38</sup> 이상 데이터의 분석치를 비교해 보면 고

<sup>35</sup> 녹우당 소장 왜경에 대한 비파괴 분석을 허가해 주신 해남 윤씨 종손 윤형식 선생님과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정윤섭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sup>36</sup> 분석장비는 XRF, 즉 X-ray 형광 측정기로서 X-ray Generator에서 발생된 1차 X선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의 구성원소에 대한 원자를 여기시켜 그 원소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각 원소의 특성 에너지, 즉 2차 X선인 전자파를 검출기에서 읽어 내어 샘플 안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 및 각 원소들의 양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분석 장치이다. 분석장비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의 분석장비 개요

구분	내용
HS부호	9022.19.1000
품명	(국문) X-선 형광 측정기, (영문)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모델명	λSORT
용량 및 수량	40kV, 0.1mA, 4W 1system
제조사 및 원산지	SPECTRO A.I GmbH(독일)
설계승인번호	MOST2.227RG002.00

<sup>37</sup> 비파괴분석은 거울의 표면에 기계를 대어 측정하므로 시료분석을 통한 데이터에 비해 한계가 있다. 또한 금속거울은 경면의 빛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 주석칠도금, 주석아말감도금, 수은칠도금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물에 의한 제품이므로 탕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성분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측정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두어 측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제시한 데이터는 합산 후 산출된 평균치이다.

<sup>38</sup> 다만 비소의 성분비가 높아 주목되는데, 『天工開物』의 기록에 의하면 砒升을 사용하여 백동을 만

려~조선시대 청동 거울과 녹우당 소장 왜경은 주성분이 구리라는 점에 공통되지만 주석, 납, 아연, 비소의 성분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석이 30% 정도 함유된 경우 백동제 거울로서 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외의 성분이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금속제 거울은 주조 이후 슿 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깎아내고 그 위에 주석이나 수은으로 도금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사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녹우당 소장 왜경은 고려~조선시대 청동거울과 비교하여 반사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두서 자화상>의 제작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거울의 제작시기가 자화상이 그려진 시기와 일치하고 직경 24.2cm의 대형 거울에 속한다는 점, 무엇보다 일본에서 유입된 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금 확인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V. 왜경을 통해 본 조선후기 대일 인식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왜경은 발굴조사 출토품·국공사립박물관 및 사찰 소장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0여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 거울의 유입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본과의 교역활동 및 조선통신사와 관련된다. 이들 왜경의 국내 유입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통신사등록』, 『증정교린지』 및 각종 개인 문집 등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sup>39)</sup>

녹우당 소장 왜경은 직경 24.2cm, 즉 8寸의 거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의 형태는 병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잡이의 크기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10寸 내외 크기의 거울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왜경에 대한 기록 중

---

들어 내는 것은 그 공정과 비용이 배나 들 정도로 어렵지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凡紅銅升黃而後鎔化造器, 用砒升者爲白銅器, 工費倍難, 侈者事之…”(宋應星, 『天工開物』 卷中之十 錘鍛 冶銅. 그러나 비소 함유 동계 기물은 東晉時期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존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비소가 포함된 백동제 거울의 반사율에 대한 데이터 또한 전무하여 기능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다. 또한 녹우당 소장 왜경의 비소 함유율은 평균 7.73%로 조선시대 여타 금속제 거울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이 거울을 제작하는데 있어 동합금의 주성분이라 하기에는 낮은 수치이다.

<sup>39)</sup> 권주영, 「조선시대 倭鏡의 유입과 배경」, 『美術史學研究』283·284(2014. 12), pp.83-114.

윤두서의 활동시기 및 녹우당 소장 왜경과 관련하여 다음이 주목된다.<sup>40)</sup>

첫째, 효종 6년(1655) 을미사행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을 다녀온 남용익의 『扶桑錄』의 기록이다. 통신사 일행은 에도에 도착한 후 관백·집정·왜경집정·중달·도주·의진·마도양승에게서 선물을 받아온다.<sup>41)</sup> 이때 일본국 번마주(幡摩州) 4품 平義眞이 조선 예조로 보내는 별폭에 <蔕繪大圓鏡> 1면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거울의 크기와 문양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거울이 어떠한 종류인지 알 수는 없다.<sup>42)</sup> 다만 일본의 번마주는 현재 효고현(兵庫縣)의 서남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오사카 인근 지역이다. 녹우당 소장 거울에서 확인되는 덴카이츠 모리타 무사시카미는 거주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울 제작자 또는 제작집단인 모리타 무사시카미 기치지(森田武藏守吉次)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호 관련성이 엿보인다.

둘째, 17~18세기에 差倭의 별폭으로 조선에 유입된 10寸 내외 크기의 왜경에 대한 자료이다. 차왜는 조선 후기 일본의 대마도에서 조선에 수시로 파견한 외교사절이며 이들이 활동할 당시 조선으로 가지고 온 일본 공예품은 상당수에 달한다.<sup>43)</sup> 이들의 활동기간 중 녹우당 소장 왜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표3과 같다.<sup>44)</sup> 이 기록에 의하면 차왜에 의해 국내 유입된 10寸 내외 크기의 거울은 적어도 10面 이상에 달하며 국내 유입 이후 서울의 예조로 보내지거나 부산의 관리에게 보내는 예물이었다. 이들 거울은 왜관에서 증답식을 거쳐 유입되었지만 당시 왜관에 근무하는 조선 측 관리들은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파견 나온 지방관이었고 재직 시 받았던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므로 점차 국내에 일본 물품이 유통하게 되었다.<sup>45)</sup>

---

<sup>40)</sup> 『通信土謄錄』1冊~14冊 참조.

<sup>41)</sup> 남용익, 「扶桑錄」, 『海行摠載』V(민족문화추진회, 1975), p.660.

<sup>42)</sup> 일본에서의 마키에 기법은 헤이안(平安)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에도시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거울을 마키에 기법으로 장식한 이른 시기의 예로 安土桃山時代の 梅樹蔕繪柄鏡이 있다.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앞의 책(1994), p.iv.

<sup>43)</sup> 差倭는 1609년(광해군 1)에 己酉約條의 체결 당시, 상경을 요청한 대마사절에게 ‘島主差倭’라는 명칭을 붙인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일정한 목적을 띠고 書契와 別幅을 가지고 조선으로 방문하는 사절을 의미한다. 그들은 조일외교의 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공무역의 경로를 통해 일본 산 물품을 가져와 진상과 회례의 절차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낸 사신이기도 하다. 한국 소재 일본경이 17~18세기에 증가하는 점과 차왜의 활동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倭鏡의 유입이 주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주영, 앞의 글(2014), pp.93-97.

<sup>44)</sup> 『增正交隣志』참조.

<sup>45)</sup> 1688년(숙종 14) 8월 동래부사 이덕성은 知人인 金昌協에게 日本刀를 선물하였으며 김창협은 이



표3 17~18세기 전반 差倭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倭鏡

시기	사절단명	별폭대상	내용
1650년이후 총 9차례	關白告訃差倭	예조참의	彩畫一尺匣鏡 1面
1651년 4대장군부터 14대 장군까지 10차례	關白承襲告慶差倭	예조참의	彩畫一尺匣鏡 1面
1658년부터 1864년까지 13차례	島主承襲告慶差倭	예조참관	彩畫一尺匣鏡 1面
1636년부터 1841년까지 9차례	通信使請來差倭	예조참의	彩畫一尺匣鏡 1面
1655년부터 1810년까지 7차례	通信使護行差倭	예조참관	彩畫一尺匣鏡 1面
1642 · 1763 · 1793년 3차례	關白生子告慶差倭	동래부사	彩畫鏡臺 2備
		부산첨사	彩畫一尺匣鏡 1面
1650년부터 1864까지 11차례	陳賀差倭	예조참의	圓鏡並架 2面

셋째, 1711년 신묘사행의 필담집 중 아지키 릿켄(味木立軒)의 『廣陵問槎錄』의 기록이다. 조선통신사의 에도(江戶) 체류 중 이루어진 문사간의 필담은 대체로 일본 문사의 질문에 조선 문사가 응대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채·서적·가위·족집게 등의 선물 교환이 이루어진다.<sup>46</sup> 1711년 히로시마번(廣島藩) 소속의 아지키 릿켄은 에도의 조선통신사 숙소로 직접 찾아와 필담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홍순연·엄한중·남성중에게 거울을 선물한다.<sup>47</sup> 해당 거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오래된 여러 점의 거울을 3명에게 선물하였으며 이후 엄한중은 회답 서신과 함께 답례품을 보내기도 하였다.<sup>48</sup> 히로시마번(廣島藩)은 현재의 히로시마현 지역으로 일본 남부지역에 해당한다. 아지키 릿켄이 이 거울을 히로시마번에

에 대한 답례로 <日本刀歌>라는 제하의 7언 고체시를 지어 보냈다. 부산박물관, 『반국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부산박물관 기증유물도록IV, 2009), pp.178-180.

<sup>46</sup> 구지현, 「17세기 通信使 筆談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韓國漢文學研究』47(2011).

<sup>47</sup> “경호, 용호, 범수 세 어른께 드림. 거울이란 형체를 비추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보는 데 서툴러 반드시 이것을 빌려 얼굴을 살핍니다. 고인에게는 수감, 귀감이 있었고 삼경, 칠경이 있었습니다. 용모의 미추를 분별할 뿐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치니 웃으면 서 받아주십시오. 입현.” 조선 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9, 『廣陵問槎錄』(보고사, 2014), p.31.

<sup>48</sup> “입현이 거울과 윤도를 주신 데 감사하며 '보배로운 거울이 땅에 묻혀 몇 년을 뒤덮여 있었나? 나 아갈 곳 방향을 잃고 반 평생을 헤매었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으니 안개를 헤친 듯 상쾌합니다 만, 오히려 서투른 말로 뒤를 따라 우러러 응수하오니 헤아려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경호, 용호, 범수.' 입현에게 드리는 글. 용호의 편지 '부채 1자루, 붓 1자루, 먹 1개를 대략 보내오니 정으로 받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입현이 내게 거울 하나를 전별 선물로 주면서 이에 경계하는 말이 있었는데 뜻이 매우 성대하여 시로써 감사하다. 범수.” 조선 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9, 앞의 책(2014), p.32.

서 가져온 것인지 에도에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조선통신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진 기물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한편 녹우당 소장품 중 왜경 외에 일본과 관련된 소장품으로 <日本與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1686년경 일본에서 제작된 <新版日本圖大繪圖>를 모사한 작품으로 1711년 신묘사행의 정사 조태역을 통해 윤두서가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sup>49</sup> 당시 지도의 입수와 함께 이 왜경을 접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이 녹우당 소장 왜경의 유입 경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17세기 후반 대외외교가 점차 활기를 띠며 이루어졌던 당시 상황을 보면 국내 유입 및 유통된 왜경은 상당량에 달하였다. 이들 거울의 주된 유통경로와 장소는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윤두서는 조선시대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생활할 시기에 이 거울을 입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당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 온 공예단과 사예단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 공예단은 예조에 소속되어 왕실의 생활용품이나 증여품으로 사용되고 사예단은 대부분 사행을 다녀온 이들에게 고루 분배되기도 하였다.<sup>51</sup> 조선의 경제체제는 화폐시장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물물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증여경제가 중심이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기물은 물물교환이 주를 이루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점차 국내에 널리 유통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인의 일본 기물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였을까. 왜경 이외의 일본 공예품은 현재 조사된 바가 거의 없어 현황은 알 수 없지만 국내 발굴조사 출토 품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유입된 이후 실생활에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개인 문집 등에서 확인된 일상생활 속 일본 기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표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일본의 칼과 서적, 거울, 부채 등이 확인되며 이들 기물은 누군가에

<sup>49</sup> 차미에, 「恭齋 尹斗緒의 國內外 地理認識과 地圖製作」, 『역사민속학』37(역사민속학회, 1997), p.339.

<sup>50</sup> 『비변사등록』 숙종 37년(1711) 6월 3일 기록인 「人才別薦別單」에는 '진사 尹斗緒'가 기록되었는데 실제 통신사에는 파견되지 않았다. 차미에, 앞의 글(1997), p.319. 이외 일본의 역사 및 지도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달라 당시 윤두서는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sup>51</sup> 1607년 회담겸쇄환사의 부사 慶暹의 『海遊錄』에 의하면 막부가 사행에게 지급한 은전과 장검 등을 차등있게 지급하였으며, 1617년 사행의 이경직의 『扶桑錄』에 의하면 소군에게서 받은 銀貨와 金屏을 역관 이하에게 나누어준다. 이외 상당수의 사행기에서 三使는 일본기물을 모두 수행원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또한 1811년 유상필의 『扶桑錄』江戶에서 보내 온 雜物の 분배기를 살펴보면 사행 후 副관과 역관 등 여러 동행인에게 나누어준 일본기물의 목록을 기재하고 있어 상세한 분배 기록을 볼 수 있다. 민덕기, 「조선 후기 對日 通信使行이 기대한 반대급부: 일본에서 받은 私禮單의 처리와 관련하여」, 『韓日關係史研究』24(2006), pp.211-247.

표4 조선시대 문집에 보이는 왜물 기록

번호	문헌	작가	작성 시기	내용
1	『서애집』 제3권 「答華人書」	유성룡	1633	倭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한 자루가 있기에 보내 드립니다만, 기호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2	『성호사설』 제6권 「萬物門」	이익	1681-1763	일본 사람은 칼을 만드는데 칼날은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하고 그 끝은 뾰족하게 하였다.
	『성호사설』 제13권 「人事門」		1681-1763	지금 倭器에 만드시 天下一이라고 새겼으니, 천하일이라는 것은 工師의 長이다.
3	『순암집』 제2권 「上星湖先生書」	안정복	1712-1791	倭書에 이름이 《和漢名數》인 책 두 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 肅宗 景오년에 貝原篤信이 쓴 책입니다.
4	『해동역사』 「引用書目」	한치윤	1765-1814	日本書 目錄에 《日本書紀》를 포함하여 총 22권 소개
5	『열하일기』 「口外異聞」	박지원	1780	부녀들의 머리꽃이와 귀이개 따위에 꾸민 것은 대체로 倭産이며 붉은 빛깔이 제법 보배롭다.
	『열하일기』 「銅蘭涉筆」		1780	외국 道人 利瑪竇가 나에게 倭扇 넉 자루를 보냈다.
6	『청장관전서』 「蟲葉記」5 永樂通寶	이덕무	1741-1793	《西宮記》는 倭人이 지은 것이다. … 일본 사람은 말에 허풍이 많으나 또한 기이한 이야기이다.
7	『연행기』 제3권 「起圓明園至燕京」	서호수	1780	金簡이 竹淸紙를 요구하기에 300장을 보내 주고, 또 野笠 1개와 倭鏡 1개, 白紬 2필, 白綿布 2필, 彩花席 10장, 雪花紙 5묵음, 청심원 30환, 부채 30자루를 함께 보내 주었다.
8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 22권 「雜文 弔蠅文」	정약용	1762-1836	倭銚에 고기를 지지고 입으로 숯불 부네.
	『목민심서』		1818	책상을 산뜻하게 정돈해 놓고 倭麵과 燕饒를 준비한다.
	『대동수경』		1814	日本書紀云
9	『경수당전고』	신위	1769-1845	《서재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읊음》中 倭剔紅創金山水盃
10	『완당전집』 卷9 「月城金正喜元春著」	김정희	1786-1856	내가 일찍이 和製鏡을 중국의 여러 명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馮晏海가 아울러 수집하여 금색의 高刻 속에 刻하여 넣었다.
11	『임하필기』 제34권 「華東玉穆編」	이유원	1814-1888	東方古器 … 倭剔紅創金山水杯
12	『하재일기』	지규식	1891-1905	倭靑, 倭紗, 왜비단(倭緞), 倭木, 倭傘, 倭器 등의 기록 38건

계 선물로 보내는 것이거나 또는 기물의 연원을 설명하고 있다.<sup>52</sup> 그런데 상기의 기록을 남긴 이들에게는 일련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남인으로 분류되는 당색을 가진 사람들의 문집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sup>52</sup> 이외 서인이었던 南九萬의 『藥泉集』에는 송준길과 윤문거의 대화 중 왜국의 버루를 언급하는 내용을 편지로 남기며 이에 대한 비판의 글을 보내기도 한다. 『藥泉集』 第34卷 書, 《寄兒鶴鳴》 “今到端川, 得見廿二日所發書, 知汝侍奉無事, 極慰極慰. 硯石事, 昔聞同春丈語, 尹文學大憲爲東萊還歸時曰, 其得倭硯否, 尹答曰力非不可得”.

조선 사회에서 일본을 문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초, 다산 정약용·추사 김정희 단계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17세기에는 왜란 이후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가지지 않은 시기이다.<sup>53</sup>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인들의 기록에서 왜물이 확인되는 점은 흥미로운데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17세기 통신사행의 三使에 남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 명칭 교체 이후 조선 중심의 화이관 속에서 일본 이적관을 체계화하는데 선구적인 학파였다는 점, 그리고 박학주의적 학풍의 백과사전식 기술을 지향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통신사행의 三使를 당색으로 분류해 보면 17세기에는 남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박재(1617년 사행의 부사), 강홍중(1624년 사행의 부사), 임광(1636년 사행의 정사), 김세렴(부사), 황호(종사관), 윤순지(1643년 사행의 정사), 이언강(1682년 사행의 부사) 등이 모두 남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인계 학자들이 일본에 대해 선구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후 일본연구를 주도해 나간 점과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4</sup>

또한 남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 또한 남다른 면모를 보인다. 명칭 교체 이후 조선 유학자들은 조선중화주의의식이 역사서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華, 일본=夷라는 화이관이 팽배하였다. 홍여하의 『휘찬여사』 「외이열전」과 허목의 『동사』 「흑치열전」 또한 화이적 명분론에서 일본 이적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술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남인계를 대표하는 이들 문헌은 일본의 정치·군사 분야라는 주제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서술되었으며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55</sup>

무엇보다 근기 남인은 박학주의적 학풍의 백과사전식 기술을 지향하였다. 근기 남인은 당시의 주류인 주자성리학 보다는 六經의 학문에 직접 뛰어 들어가 그 본의를 해석하려 하였다. 이들은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諸子百家의 학문이라든가, 천문·지리·역사·노장학·양명학 등 다양한 범위의 학문에 대해서도 스스로 연

<sup>53</sup> 정옥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한국문화』10(1989, 12), pp.212-213.

<sup>54</sup> 하우봉, 『연세국학총서 7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의식』(혜안, 2006), p.243.

<sup>55</sup> 17세기 남인계 실학파로 분류되는 홍여하와 허목은 『彙纂麗史』 「外夷列傳」과 『東事』 「黑齒列傳」을 통해 명칭 교체 이후 조선의 사상계에 풍미한 조선 중심의 화이관 속에서 일본이적관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였으며 비록 일본 인식이 정치·군사적 측면에 머무르긴 하였지만 임란 이후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의 단초를 열었고, 이후 남인계 실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우봉, 앞의 책(2006), pp.220-225.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곧 博學主義의 학풍으로 설명된다.<sup>56</sup> 예를 들어 17세기를 대표하는 허목, 윤희, 유형원은 근기남인의 학풍을 이끄는 이들로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된 바 있으며 특히 허목의 문집 『記言』은 남인실학파의 백과사전식 기술의 효시를 보여주는 문헌이다.<sup>57</sup> 그러므로 이들의 개인 문집에 왜물의 기록이 확인되는 것은 사상과 사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남인 고유의 실증주의적 태도와 서술 방법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된다.<sup>58</sup>

한편 이러한 왜물이 일상의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도 기인한다. 17세기 초 광해군 1년(1609)의 기유약조 체결 후 조일교역은 급증하게 된다. 당시 조선과 일본 측이 진상과 회사 및 공무역에 통해 상호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세세히 알기 어렵지만,<sup>59</sup>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일본에서 상당량의 왜물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역인 開市에서도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역량도 상당하였는데<sup>60</sup> 이들 왜물은 점차 그 수량이 증가하며 왜관과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 시중에 유통되었다.

17세기~18세기 초, 서울 지역에서는 왜관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차왜가 진상한 왜물이 차츰 증가하고 있었고, 당시 남인계열의 학자들은 조선통신사의 三使로 일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본에 대한 역사서를 서술하는 등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윤두서가 일본의 문화, 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해 상

<sup>56</sup> 이러한 학문적 개방성은 星湖學派 및 實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西學 수용을 가능하게 한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이대근, 「조선 후기 근기남인의 서학수용에 관한 연구: 천주관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조선 후기 천주교 수용의 주체인) 近畿南人の 天觀 연구」, 『가톨릭신학』13(2008), pp.183-215.

<sup>57</sup>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 허목, 윤희, 유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9(1997. 6), pp.157-192.

<sup>58</sup> 서애 유성룡의 대일 인식은 주자 성리학의 華夷論에 토대한 교린론으로 일본을 夷狄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총과 같은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용하여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왜물에 대한 실증주의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호중, 「西厓 柳成龍의 日本에 대한 認識과 그 對應策」, 『대구사학』78(2005. 2), p.18. 또한 성호 이익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무관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일본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 사회의 실상과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이익의 일본인식에는 통신사행원을 통한 일본서적 입수와 전문이 중요한 정보통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아들 이명휴의 역할이 컸다. 하우봉, 앞의 책(2006), pp.49-63.

<sup>59</sup> 임반석, 「17-18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교역과 조선상인의 역할: 조선 사상의 중, 왜 중개무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32(2004), pp.239-268.

<sup>60</sup> 김동철,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61(1995), pp.245-280.

당한 지식을 습득하고, 당시 최신 일본지도를 모본으로 하여 〈일본여도〉를 제작하며, 직접 왜경을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생각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녹우당 소장 경대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윤두서 자화상〉과의 관계 및 조선 후기 왜물에 대한 인식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윤두서의 활동 시기와 왜경이 유입된 시기의 사회적 배경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내 소재 왜경 및 조선경과의 비교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제는 차후 거울의 문양분석을 중점으로 한 개별연구를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녹우당 소장 왜경은 17세기~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왜경이며 목제 경대는 19세기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기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 당시에는 별도의 경가 또는 경대에 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는 손잡이가 있는 병경이었으나 이후 손잡이를 절삭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시 왜경의 유행을 짐작케 한다. 이 거울의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조선통신사와 차왜의 활동과 관련되며 중심 유통지는 서울과 왜관 일대이다. 그러므로 윤두서가 이 거울을 입수한 것은 서울에서 생활한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낙향할 당시 소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녹우당 소장 거울은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녹우당 소장 왜경이 기능면에서 우수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성분비를 분석하여 반사율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 결과 고려~조선시대 여타 금속제 거울과 차이점을 논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 거울은 일본에서 유입된 대형의 거울이며 제작시기가 〈윤두서 자화상〉이 그려진 시기와 부합된다는 점에 있어 주목되는데 현재로서는 자화상 제작과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차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한편 녹우당에는 왜경 이외에도 윤두서가 일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본여도〉가 소장되어 있다. 17세기는 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시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 후기 개인 문집에서 확인되는 왜물에 대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흥미롭게도 남인계열의 학자들의 문집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17세기 통신사행의 삼사에 남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 명칭 교

체 이후 조선 중심의 화이관 속에서 일본 이적관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데 선구적인 학파였다는 점, 그리고 박학주의적 학풍의 백과사전식 기술을 지향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녹우당 소장 경대와 <윤두서 자화상>과의 관계 및 조선 후기 왜물을 통한 대일 인식 경향을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에서 제작되고 유통된 거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비교 분석의 자료 부족으로 인해 연구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 범위의 확대와 증가를 기대한다.

주제어 keywords

녹우당 Nogudang, 경대 dress table, 왜경 Japanese mirror, 남인 Namin,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투고일 2015년 8월 10일 | 심사일 2015년 8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7일

참고문헌

논저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공재 윤두서 Gongjae Yun Du-seo』, 공재 윤두서 서거 30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Speci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300th Anniversary of Gongjae Yun Du-seo's Death, 2014.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木家具 Wooden Furniture』, 2003.

김삼대자 Kim, Samdaejja, 『전통 목가구 Traditional Wooden Furniture』, 대원사 Seoul: Daewonsa, 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Museum of Dong A University, 『목가구 꾸밈展 Decorate Furniture with Ornaments』, 개관 52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n the 52nd Anniversary of the Opening, 2011.

박은순 Park, Eunsoon, 『공재 윤두서, 조선후기 선비 그림의 선구자 Gongjae Yun Du-seo, a Pioneer of Seonbi Painting in the Late Joseon Period』, 돌베개 Paju: Dolbegae, 2010.

사빈 멜쉬오르 보네 Sabine, Melchior Bonnet, 윤진 옮김 Yun Jin, trans., 『거울의 역사 Histoire du miroir』, 에코리브르 Seoul: Ecolivre, 2001.

이내옥 Lee, Naeok, 『공재 윤두서 Gongjae Yun Du-seo』, 시공사 Seoul: Sigongsa, 2003

조선미 Cho, Sunmi, 『한국의 초상화 Korean Portrait Paintings』, 돌베개 Paju: Dolbegae, 2009.

차미애 Cha, Miae, 「恭齋 尹斗緒의 國內外 地理認識과 地圖製作 Gongjae Yun Du-seo's Recognition of Domestic and External Geography and Map Making」, 『역사민속학 Historical Folklore Studies』37, 1997.

하우봉 Ha, Woobong,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의식 Koreans' Perception of Japan in the Joseon Period』, 연세국학총서 Yonsei Korean Studies Series 7, 혜안 Seoul: Hyeon, 2006.

韓政熙 Han, Jeonghee, 『朝鮮工藝展覽會圖錄 Joseon Craft Exhibition』(復刻板 re-printed from wood blocks), 第1~7卷 Vol 1-7, 景仁文化社 Seoul: Kyungin Publisher, 1992.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Kobayashi, Tatsuo, Aoki, Yutaka and Uchikawa, Takashi ed., 『柄鏡大鑑 Encyclopedia of Mirrors with

*Handle*』, ジャパン通信社 Tokyo: Japan Tsushin, 1994.  
管谷文則 Suguya, Fuminori, 『日本人と鏡 *Mirror of Japanese People*』, 同朋舎  
出版 Kyoto: Dohosha Shuppan, 1991.  
広瀬都巽 Hirose, Tosen, 『和鏡の研究 *Study on the Japanese Mirrors*』, 角川書  
店 Tokyo: Kadokawashoten, 1974.

ABSTRACT

## A Study on the Dressing Table in the Nogudang

**Kwon, Jooyoung**

In Haenam Nogudang, there is a dressing table owned by the Yoon family of Haenam. This is made of wood with a round copper mirror on it. Its form is very distinctive and domestically unprecedented.

This two-decked mirror stand has a cover on its upper deck and a drawer on the lower deck. It is assumed that this piece was made after the 19th century Joseon Dynasty in Jeolla-do due to the shape of its metal ornaments, use of built-in type lock, and leg-attaching style.

The copper mirror is round shaped without a handle, and decorated with patterns like sand grains sprayed on the background and, arabesque and peony patterns on the middle respectively. Denkaitsu morita musasikami is written on its left bottom as inscription. Its decoration and inscription indicate that it is a mirror produced and used from the 17th to 18th century in Japan. It was originally a hand mirror with a handle, but had been cut later which shows Japanese mirror trends of the time.

According to a number of references, Nogudang was brought in relation with Korean delegations and their activities. Most domestically found Japanese mirrors are owned by museums and temples and the distribution range is on the route between Japanese trading post and Seoul. It is highly possible that Yoon Doo Seo had obtained the mirror when he was living in Seoul and it is assumed that it was transported when he retired.

Nogudang owns not only a Japanese mirror, but also <Ilbonyeodo (Map of Japan)> which indicates that Yoon Doo-Seo had had substantial interest and knowledge about Japan at the time. He had considerable interest towards Japan even

it was the 17th century when there was high negative awareness against Japan due to the war. Interestingly,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private anthology of late Joseon Dynasty, most of them belonged to the affiliation of Nam'in.